

바람의 손자 이정후 “아쉽네”

MLB 사무국 올스타전 선발·후보 발표… 이, 출전 무산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첫 ‘별들의 잔치’ 참가가 무산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5일(한국 시간) 양대 리그 올스타전에 나설 선발 및 후보, 투수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

올 시즌 타격왕 경쟁을 벌여 기대를 모았던 이정후는 내셔널리그(NL) 외야수 부문은 물론 감독 추천 선수 명단에도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하며 올스타전 출전을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됐다.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양대 리그 통틀어 팬 투표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으며 개인 통산 6번째 올스타전에 나선다.

오타니는 이번 시즌 OPS(출루율+장타율) 0.927, 18홈런의 맹타를 휘둘러 NL 지명타자 부문 선발로 낙점됐다.

아메리칸리그(AL)에서는 애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8번째 올스타 유니폼을 입는다.

또한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는 전체 출전 선수 중 가장 많은 개인 통산 12번째 올스타에 선정됐다.

베테랑들의 꾸준함도 빛났다. 프레디 프리먼(다저스)과 크리스 셰일(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은 나란히 통산 10번째 올스타전에 나서는 기쁨을 맛봤다.

커미셔너 특별 추천 선수인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필리스) 역시 9번째 올스타에 뽑혔다.

구단별로는 다저스와 애틀랜타, 필라델피아가 각각 5명의 올스타를 배출해 가장 많았다.

새로운 얼굴들도 대거 등장했다. 이번 명단에는 케빈 맥코니글(디트

로이트 타이거스) 등 4명의 신인을 포함해 무려 26명의 선수가 생애 첫 올스타의 감격을 누렸다.

한편, AL 1루수 부문 팬 투표 1위를 차지했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는 허리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해 선수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닉 커츠(애슬레틱스)가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올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은 오는 15일 필라델피아 필리스 홈구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이정후가 올 시즌 올스타전 출전에 기대됐으나 무산됐다.

연합뉴스



하탈해 웃는 메시 vs 담담한 골키퍼 보지냐 4일(한국 시각) 미국 마이애미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아르헨티나와 카보베르데전. 이날 경기는 아르헨티나가 연장까지 가는 고전끝에 3-2로 승리했다. 경기가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허탈한 웃음을 짓고 있는 아르헨티나 메시 뒤편으로 카보베르데의 골키퍼 보지냐가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서양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쓴 동화

스페인과 무승부→32강→아르헨티나와 명승부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본선 무대를 ‘이번의 무승부’로 시작한 아프리카 서쪽 대서양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와의 명승부로 존재감을 거듭 각인하며 여정을 마무리했다.

카보베르데는 4일(한국시간)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2-3으로 졌다.

이름조차 생소했던 인구 52만명

의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월드컵 무대에 깊숙이 이름을 새기며 도전을 마친 순간이었다.

포르투갈 식민지로 500여년간 지내다 1975년 독립한 카보베르데는 1986년 FIFA에 가입한 뒤 2000년대 들어서 월드컵 문을 꾸준히 두드린 끝에 이번에 처음으로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본선 데뷔전인 지난달 16일 스페인과의 조별리그 1차전부터 0-0으로 비겨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2차

전에선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2-2 무승부를 이뤄 돌풍을 이어갔다.

3차전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다시 0-0으로 비긴 카보베르데는 조별리그에서 3무로 승점 3을 쌓아 H조 2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32강에 진출했다.

32강에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균형을 이뤄 연장전으로 향했고, 연장전에서도 아르헨티나에 먼저 한 골을 허용하고서 다시 동점을 만드는 저력을 보이는 등 카보베르데는 막판까지 아르헨티나의 간담을 여러 차례 서늘하게 했다.

연합뉴스



타율 0.068 김하성, 부상자 명단 올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애틀랜타 구단이 김하성(사진)을 오른쪽 가운데손가락 염증 증세로 10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올렸다고 5일(한국시간) 전했다.

이번에 염증이 발생한 부위 지난 1월 수술대에 올랐던 바로 그 손가락이다.

김하성은 애틀랜타와 1년 2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직후 한국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오른쪽 가운데손가락 인대가 파열돼 수술받은 바 있다.

수술 여파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던 김하성은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를 거쳐 5월 중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합류했으나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렸다. 복귀 후 성적은 27경기에서 홈런 없이 타율 0.068(73타수 5안타)에 불과하다.

MLB닷컴은 “2000만 달러짜리 후보 선수로 전락한 김하성이 마이너리그 재활 경기를 통해 타격감을 되찾는다면, 후반기 라인업에 재합류하거나 향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될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김효주, KLPGA 롯데 오픈 우승

합계 15언더…5위→1위로

여자골프 세계랭킹 3위 김효주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롯데 오픈(총상금 12억원) 우승컵을 들고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를 탄다.

김효주는 5일 인천시 베어즈베스트 청라 골프클럽 미국·오스트랄아시아 코스(파72)에서 열린 제16회

롯데 오픈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쓸어 담는 맹타를 휘둘렀다.

선두에 3타 뒤진 5위에서 4라운드를 시작한 김효주는 합계 15언더파 273타로 역전 우승을 거두며 상금 2억1600만원을 받았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없는 틈을 타 한국 무대를 찾았던 김효주는 지난 5월 NH투자

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올해에만 KLPGA 투어에서 2승을 챙겼다.

지난주 LPGA 투어 KPMG 여자PGA챔피언십 출전 이후 곧바로 한국에 오는 강행군을 벌인 김효주는 롯데 오픈 우승 뒤 설 틈도 없이 9일 개막하는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이 열리는 프랑스로 향한다.

유현조와 이세희, 박예지는 김효주에 한 타 뒤진 공동 2위(합계 14언더파 274타)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취 임

제주소방서장



고정훈

[부: (故)고을운·모: 오윤순]

명예로운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친족일동

취 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취임 축하드리며 오직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서귀포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일동

양성평등확산사업 진행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이은주)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가정 내 부리김계 자리잡은 가사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게 모범적인 양성평등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참여하는 ‘함께하는 공동살림-행복한 가정공동체’라는 슬로건으로 양성평등확산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 내 여성 혼자 하는 가사 일에서 벗어나 가족 구성원이 가사 일에 함께 참여하여 가정에서부터 이루는 양성평등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간 존중과 화합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7월 20일, 7월 21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에서 22일, 23일은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공동살림의 과제실습으로 만든 김치(일백만 원 상당) 등은 취약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사)한국생활개선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 이은주